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대통령실, 기자들과 질의응답…쌍방향 생중계

대통령실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쌍방향으로 생중계하고 그동안 '대통령실 관계자'로 익명 인용돼 보도됐던 백브리핑의 실명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은 KTV에서 생중계됐다. 그동안 언론은 비서실장·정책실장·수석비서관은 '고위관계자', 비서관은 '핵심 관계자', 행정관은 '관계자'라고 칭해왔다. 이제는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 실명, 소속이 전부 공개되고 백브리핑이 생중계되면서 익명의 '관계자'라는 암묵적 관행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질문하는 기자도, 대통령실도 숨을 곳이 없어진 이재명 정부의 '쌍방향 브리핑'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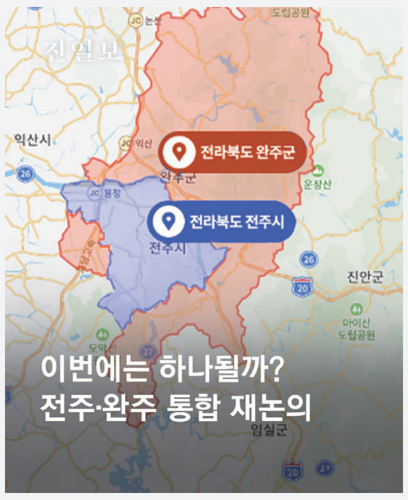
ACC, 무더위 이겨낼 다양한 콘텐츠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여름철을 맞아 전시·독서·야외 휴식을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오는 7월6일까지 디지털과 산수화를 접목한 '이이남의 산수극장'이, 8월24일까지 트로트를 주제로 한 '애호가 편지'가 펼쳐진다. 8만여권의 책이 비치된 어린이문화원도서관에서는 '북캉스'를 즐길 수도 있는데, 오디오북, 영상도서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6900㎡ 규모의 천연잔디가 펼쳐진 하늘마당에서는 낮에는 피크닉, 밤에는 야간조명과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무더위를 이겨낼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익산에 코스트코 호남권 최초 입점

코스트코가 호남권 최초로 익산에 입점한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1만5000평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 오는 8월 진입로 공사를 시작으로 2027년 설 전 개장이 목표이며 현재 부지 매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주시 등도 코스트코 입점이 논의돼 왔으나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익산은 호남고속도로, 익산IC 등 교통 요지라는 이점과 전담TF·투자보조금 등 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유통 공백지대'라는 매력이 있는 곳이다. 앞으로는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까지 아우르는 광역 쇼핑 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전주·완주 행정 통합 논의 '재점화'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 논의가 재점화됐다. 지난 1997년부터 총 세 번의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초됐는데, 네 번째 시도 역시 험난할 전망이다. 전주는 '지방소멸 위기'를 내세우며 완주와 통합해 100만 광역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시 인구가 약 75만명 정도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 광역시 승격을 노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완주는 통합 전 완주군 1인당 예산 약 850만원이 통합 후에는 약 458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행안부의 통합 주민 투표는 내년 8월 말·9월 초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기고 | 신우철 완도군수

2026pre·2028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조류 산업발전 추진

완도군은 2028년, 세 번째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4년과 2017년에 이은 11년 만의 박람회로, 해조류 산업을 세계적 미래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야심찬 도전이다.

과거 해조류는 주로 식재료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2014년과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이후 해조류는 단순 먹거리를 넘어 바이오소재, 의약품 원료, 화장품,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자원으로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김 산업은 2014년 수출액 2억7000만 달러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7억9000만 달러를(1조원) 달성하며 세계 김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는 한국 해조류를 인류 미래 6대 식량자원 중 하나로 선정하며, 스페인 토마토, 캐나다 연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현재 한국의 해조류는 1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해외 소비자들에게 건강식으로 자리 잡아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도 이를 SNS에서 소개하고 있다. 해조류는 더 이상 바다의 잡초가 아닌 '바다의 반도체', '바다의 채소(Sea Vegetable)'로 불려야 할 만큼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해조류 생산량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완도는 연간 80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산지이다. 완도의 해조류는 ASC(국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해조류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식 표기에 지배돼 왔다. 김은 '노리(Nori)', 미역은 '와카메(Wakame)', 다시마는 '콤부(Kombu)'로 유통돼 왔다. 이에 완도군은 한글식 영문 표기(Gim, Miyeok, Dasima)를 정착시키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 해조류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다.

해조류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2028 박람회는 필수적이며, 그 전초전으로서 2026 프레(PRE) 박람회의 개최는 전략적 선택이다.

해조류의 탄소 흡수 능력은 육상 식물 대비 최대 50배에 달해, 블루카본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완도군은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선도지자체로써 2024년 11월 미국 NASA(미항공우주청)·에너지부와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공동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를 협의하였다.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된다면, 완도는 탄소 거래제 수혜 1순위 지역이 될 것이며, 군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이 구축될 것이다. NASA가 2024년 자사 홈페이지에 완도 해조류 양식장 위성사진을 소개한 것은 완도의 해조류 산업이 세계적 연구와 정책의 대상으로 떠올랐음을 상징한다.

완도는 해조류뿐 아니라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두 산업 간의 융합은 관광, 의료,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다방면에서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다. 2026년에는 세계 한인경제인대회(한상대회)도 완도에서 개최돼 글로벌 유통망 및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28 박람회는 단순 전시를 넘어 국제학술대회, 전문가 세미나, 기업 교류회,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완도를 글로벌 해조류 연구 및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2028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내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라는 주제로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 하는 2026프레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28국제해조류박람회의 축소판이자 시험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해조류는 이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 자원, 기본소득 모델, 국가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완도군은 이미 두 차례의 박람회를 통해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선점했다.

2026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2028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해조류박람회의 지속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